



종교언론으로는 최초로 3000호를 발행한 불교신문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법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주요 내빈들의 3000호 축하액 절단식. 김형주 기자

coo@bulgyo.com

“불교신문 도반 삼아 ‘불도’ 구하라”

〈佛道〉

종정예하, 본지 3000호 기념법회에서 ‘당부’…불교·정관계 인사 ‘신문발전’ 기원

“사부대중은 불교신문을 도반 삼아 위로는 불도(佛道)를 구하고, 아래로는 못 중생들을 사랑하고 보살핌에 내 몸 살피듯 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글로써 만민에게 선양해 온 불교신문의 30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사부대중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올해로 창간 54주년을 맞은 불교신문(사장 성직스님)은 지난 7일 오후6시30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그랜드볼룸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령 3000호 발간기념 축하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9일자 3000호 발행을 기념해 개최한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원 중

하스님, 인환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몽준·김진표·박영선 국회의원,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3000호 발간을 축하했다.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문을 연 1부 기념법회는 불교신문 지령 3000호 소개 영상에 이어 종단 지도자들의 축사와 당부가 이어졌다. 특히 진제 종정예하는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교신문이 사바세계에 탄생한 지 54년이 되는 날이요, 그 일성일성(一聲一聲)을 토

해 낸 지 3000호에 이른 뜻 깊은 날”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일등포교사로서 불교의 대중화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으니, 호법선장이라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불교신문 발행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그동안 불교신문과 함께 해준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도 축사를 통해 “지령 3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경축하며 대장경판을 새기는 심정으로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 축하메시지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도 잇달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교신문은 지난 54년 동안 한국 현대불교의 성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불교사의 증인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로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부처님 정법을 담아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현직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는 지난 2004년 지령 2000호 기념법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낸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그 동안 불교신문

발전에 기여한 전 사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시상도 마련됐다. 불교신문 제41대 사장 함적스님, 42대 사장 선묵스님, 43대 사장 수불스님과 최병문 전 부산시장이 공로패를 받았고 송문호 창간독자, 최우환 서울 궁플라트 치과 원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축하떡 절단식, 내외빈 소개에 이어 열린 2부 행사는 만찬과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지령 3000호 발간을 계기로 더욱 문서포교에 정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부처님 정법을 지켜내는 호법선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4~5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국난 극복한 서산대사 국가적 추모 왜 안되나

종단 주최…25일 대흥사서 대제 봉행

임진왜란 당시 8도16종선교도총섭(승군총사령관)으로 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호국충혼을 추모·선양하는 제향이 열린다. 조계종 제22교구 대흥사(주지 범각스님)는 서산대사 탄신 49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보현당과 성보박물관 등 경내 일원에서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대흥사와 (사)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양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서산대제는 2년 전 문헌고증을 통해 복원한 조선시대 예제관 행렬과 국가제향, 서산대제 법요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제향 재현에는 초헌관에 박철환 해남군수가, 아헌관에는 박희재 해남군의회장, 종헌관에는 김도기 해남경찰서장이 역할을 맡으며 종묘제례보존회가 축문을 읽는다. 법요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대



서산대사 진영.

흥사 회주 보선스님을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 등 3000여명이 동참 예정이다.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은 서산대제 국가기념일 지정, 의승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무명 의승군 위령각 및 충훈탑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흥사는 이날 성보박물관 광장에서 제20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사생대회는 운문, 산문, 사생, 서예로 나눠지며 전국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공부하다 죽어라’던 해암스님 조명

‘문화진흥회’ 16일 첫 학술대회 개최

평소 대중들에게 ‘공부하다 죽어라’고 참선정진을 독려했던 조계종 전 종정 해암스님(사진)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해암선사문화진흥회(회장 성법스님)는 오는 16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스님이 ‘해암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동국대 교수 종호스님이 ‘해암 선사의 선사상과 수행방법’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불교 리더십 형성과 하화중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안스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이학중 미디어뷰트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세미나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1920년 3월 장성에서 출생한 해



표적인 선승이다. 1993년 성철스님 입적 후 스님의 뒤를 이어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했다. 1994년과 1998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으로 종단개혁에 앞장섰으며, 1999년 4월에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해암스님은 2001년 12월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구가 역연하니 정진 잘해라”고 당부하고 열반에 들었다.

해암선사문화진흥회는 교육, 승가복지, 장학·복지사업 등을 통해 해암 선사의 숭고한 사상을 선양하고자 2011년 설립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고불총림 방장 지선스님 고불법회

백양사, 20일 곡우 다례도

지난해 11월 고불총림 4대 방장으로 추대된 지선스님(사진)의 고불법회가 오는 20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고불법회는 곡우다례제를 맞아 조사전에서 역대 조사들에게 햇자를 올리는 헌다와 함께 진행된다. 이어 오후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 스님에게 유나 일수 스님이 불자를, 주지 진우스님은 법장을 각각 봉정하고 방장 스님 법어 등 법식이 펼쳐진다. 고불총림 백



양사 방장 지선스님은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으며 1961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경남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영광 불갑사, 백양사 주지와 유나, 칠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社告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행 기념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불교신문은 지난 1960년 1월1일 창간하여 불교계 정상의 언론 매체로서 54년 동안 불법홍포와 불교의 권익보호를 선도해왔습니다. 불교신문이 창간 54주년을 맞아 ‘불교계 최초로 지령3000호 발행’이라는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한 대 한국불교 산증인이었던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고 역사성과 전통을 알리는 의미에서 3000배 철야정진 사업을 전개합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기고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모연된 모연금을 국내·외 난치병 환아들에게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진행일시 : 2014. 4. 19. 토 ~ 4. 20. 일
- 장 소 : 조계사의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 동참문의 : 02)723-5101



불교신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불교광종



(사)한국불교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정신과 현대의 조계종’

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초청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학회는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공동으로 “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양을했던 일제강점기의 불교를 지키고, 오늘날의 청정승가인 조계종을 확립하는 정초를 여신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재조명해보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꽃인 조계종의 전통을 올곧게 유지하는 자랑스러운 종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부터 동아시아까지의 대승불교권에서 독신의 선수행 전통을 오롯이 지켜온 것은 한국불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제에 의해 한국승단의 청정 가풍이 어지럽혀지고, 한국불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신의 수행자상도 심하게 오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석전石顚(1870~1948)스님과 한암漢岩(1876~1951)스님께서는 계율과 교학, 그리고 선수행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청정종풍을 바로 세우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석전스님은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에서 7인의 중정 중 한 분으로 추대되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초대교정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한암스님은 1929년과 1935년, 그리고 1941년과 해방 후인 1948년까지 총 4차례나 중정(교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특히 1941년에는 조계종 초대종정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불타의 정법 해명을 올바르게 세우신 두 분의 가르침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미래 한국불교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쪼록 두 선지식의 수행과 계율정신에 다시 귀를 기울여 해이된 종풍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 뜻 깊은 법연에, 학계 제현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 만



일 시: 2014년 4월 18일 (금) 12시~18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 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주 최: (사)한국불교학회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 관: (사) 한국불교학회 (문의처/ 02-2260-3835)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전통원

- ◆ 12:00-12:30 참가자 등록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 개회식 (12:30-13:50)
* 사회: 성륜(선운사 교무) / 자현(월정사 교무) / 김원일(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삼귀의/반야심경
개회사/ 김용표(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환영사/ 정 법(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법 만(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치 사/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해(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회주)
법 여(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축 사/ 현 응(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지 원(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희옥(동국대학교 총장)

참가자소개 / 행사진행안내

- ◆ 제 1 부 주제발표: 14:00-15:40
* 좌장: 권탄준(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사회: 최종식(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 석전과 한암을 통해 본 불교와 시대정신 / 자 현(월정사 교무국장)
* 근대한국불교에서 한암의 역할과 불교사적 의의 / 조성택(고려대 교수)

- 한암의 선과 계율정신 / 이덕진(창원문성대 교수)
- 한국불교와 석전영호의 위상/ 정 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 석전의 계학관과 '계학약전' / 법 상(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 휴 식: 15:40-16:00

- ◆ 제 2 부 주제발표: 16:00-17:40
* 좌장: 김성철(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의 문재의식/김광식(동국대 교수)
·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신규탁(연세대 교수)
· 영호(석전) 정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 고영성(동국대 교수)
·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윤창화(민족사 대표)
· 천태에서 본 한암의 선사상 / 해명(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종합토론: 17:40-18:10

- ◆ 2014년도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 18:20-18:50
* 사회: 최종식(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성원보고 / 안건토의 / 사총서원

◆ 만 천 (19:00-21:00)